

사회

# 광주 지상고가 경전철 백지화

## 도시 미관 저해·소음 등 부작용 많아

###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철-모노레일-지하경전철 압축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이 노면전철과 모노레일, 저상도 지하 경전철로 압축됐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결정했으나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도시 미관 저해, 소음, 설치 후 변경 불가능 등의 부작용이 높다는 이유로 6년 만에 이를 폐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계획된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의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소음문제 등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기본 및 실시 설계 이전에 3가지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는 “재정여건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조만간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지상고가를 설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는데 이를 추진중인 지자체들이 지상고가 경전철 대신 노면전철로 선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면전철은 별도의 역사 등 기반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비가 지상고보다 최대 50% 이상 저렴하며, 교통수요를 감안해 수시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신속성이나 정시성 등을 담보하기 어

렵다. 모노레일은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에 비해 도시미관에 대한 영향을 줄이며 기존 교통체계도 유지할 수 있으나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지하 터파기를 최소화하는 저상도 지하 경전철은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광주시가 구도심과 신도심의 여건, 도로 폭 등 구도별로 특징을 감안해 이들 3가지 방식을 각기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조7394억원을 들여 41.7km의 확대순환형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로 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의 노선 확대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변경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건설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겨울과 봄의 경계 나누는 '절분초'

### 국립공원의 야생화

#### (1) 변산바람꽃

겨울과 봄의 계절을 나누는 풀이란 의미로 '절분초'(節分草)라 불리기도 하나, 봄의 전령사라 해도 손색이 없다.

10cm 정도의 줄기와 꽃받침이 먼저 나온 후 꽃받침 안에 꽃잎이 흰 수술과 함께 나온다.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받침이고, 안쪽에 위로 치솟은 녹색, 노랑색 깎때기가 진짜 꽃잎이다. 바람꽃이라는 이름은 바람의 신 제피로스나 플로라의 시녀

아네모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꽃의 신 플로라는 연인 제피로스가 그녀의 시녀 아네모네를 사랑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를 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상심한 제피로스는 매년 봄이 되면 바람을 보내 아네모네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했다고 한다.

변산바람꽃의 학명은 봄꽃이라는 의미의 'Eranthis'와 발견자인 변산, 발견자의 이름이 반영된 Eranthis byunsanensis B.Y. Sun으로 표기하고 있어 우리에게 의미있는 꽃이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5분 해질 19시 09분 달뜨기 21시 54분 달짐 07시 03분

**곡우(穀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광주	맑음	5/20℃
목포	맑음	5/16℃
여수	맑음	8/17℃
나주	맑음	3/20℃
완도	맑음	4/18℃
구례	맑음	2/21℃
해남	맑음	1/18℃
장흥	맑음	1/19℃
순천	맑음	5/19℃
영광	맑음	4/17℃
진도	맑음	3/18℃
전주	맑음	4/20℃
군산	맑음	4/16℃
남원	맑음	1/20℃
홍산도	맑음	6/13℃

지역	종형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	🚫	🌸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	🚫	🌸

◇주간날씨

날짜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7/21	11/15	8/16	9/15	8/17	8/15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시교육청, 징계처리 미숙 '망신'

## 징계 업무 감사관이 총무과장 옮겨 위원회 참석

### '비위 혐의 사무관 해임' 절차상 하자 원천무효

광주시교육청이 비위 혐의로 사무관을 중징계(해임)했으나 절차상 하자로 원천무효가 돼 해당자를 복직시켜야 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모 사무관에 대한 해임 의결이 무효 처리됐다.

최 사무관은 지난 1월말 10억원대의 학교 물품 등의 구매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혐의로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와 함께 해임됐다.

징계의결이 효력을 상실한 것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당시 최 사무관의 비위 조사를 담당했던 유모 감사관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당면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유 과장이 징계 사안이 됐던 징정서 접수와 결재, 처리과정서 보고를 받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한 만큼 업무 당사자로서 배제 사유가 되므로 징계의결은 무효다”고 밝혔다.

소청위의 결정에 따라 시 교육청은 최 사무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시 교육청은 현 총무과장을 배제하고 조만간 재위원회 과정을 거쳐 최 사무관의 비위 조사를 담당했던 유모 감사관이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농협 전산장애 8일째 피해보상 요구 잇따라

농협 전산장애가 발생한 지 19일로 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고객들의 피해보상 요구와 이에 대한 농협의 보상처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농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8일 오후 6시까지 31만10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공과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원은 총 955건이었다”면서 이 가운데 9건, 298만원에 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농협은 간접피해는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는 입장 이어서 고객들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맹(금융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고객들은 농협 전산장애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연은 지난 15일부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함께 홈페이지(www.kfcb.org)에 고객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전국 단일전화(☎1577-4995)로도 피해를 접수 중이다.

연합뉴스

# 농협 전산망 삭제명령 檢 '예약실행' 정황포착

## 내부 직원 소행이거나 해커와 공모 개연성 시사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9일 서버운영 시스템 삭제명령어가 '예약 실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삭제명령의 진원지인 한국 IBM 직원 노트북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최소한 한달 전부터 삭제명령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노트북에 삽입된 뒤 지난 12일 지정된 시간에 일제히 실행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내부 시스템과 운영 구조를 잘 아는 내부 직원의 소행이거나 내부자가 외부 해커와 공모해 범행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후 농협 IT본부(전산센터)의 실무책임자인

김모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산망이 마비될 당시 서버 관리 상태와 방화벽 작동 유무, 사후 처리과정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농협 메인서버에 대한 '최고 접근 권한(Super Root)를 가진 농협IT본부 및 IBM 직원 5명 가운데 수상한 행적을 보인 2~3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일부 직원 자격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이 보관하던 서버 및 보안 관련 파일 등 각종 전산자료를 가져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스템 삭제명령어가 노트북 키보드로 직접 입력된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노트북 접속 사실이 확인된 문제의 이동저장장치(USB)를 통해 명령어 프로그램이 삽입됐는지 여부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 평교사가 교육정책 점검 '교원 모니터단' 출범

교육 현장의 평교사들이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교원 모니터단'이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오후 공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교육정책 교원 모니터단' 교사 4977명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니터단 출범식을 가졌다.

교감이나 교장이 아닌 평교사로 구성된 교원 모니터단은 오프라인 모니터단(499명)과 온라인 모니터단(4천977명, 오프라인 모니터

단 포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프라인 모니터단은 교과부, 교육청과 협의해 모니터단 정책과제를 선정·검토하고 격월로 열리는 시도별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며, 온라인 모니터단은 주로 각종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교과부는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정책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누군가는 아스팔트에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도로를 봅니다

누군가는 아스팔트에서 자동차를 달리게 할 에너지를 봅니다

석유 찌꺼기인 아스팔트를 한번 더 정제하는 기술로 청정경유를 찾은 GS 칼텍스

**GS 칼텍스의 새로운 시각으로 아스팔트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숨겨진 에너지까지 찾는 일 GS 칼텍스가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VR-HCR기술은 원유정제과정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아스팔트유에서 청정경유 등 고부가가치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GS 칼텍스의 정제기술입니다.

GS 칼텍스가 찾고 있는 숨겨진 에너지

- 탄소소재사업: 세계 최대 규모 탄소소재 생산(연간 생산량 300만톤)
- 바이오연료: 비석유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바이오에탄올 개발
- 박막전지: 2010년 상업생산 개시 (연간 7만발판 규격)
- 이차전지 소재: 국내 최초로 중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 개발
- 연료전지: 건물용, 상업시설용 개발
- 스마트 그리드: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리드 대용 충전소 도입
- 폐자원 에너지화: 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 수소에너지: 국내 최초 민간 수소스테이션 건설

am your Energy

GS 칼텍스